아주 이 한 생에 깨쳐서 모든 업식을 다 소멸시키자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 가신다면 나도 또한 같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만 불(萬佛)이 일 불(一佛)이고 일 불이 만 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불성 자체, 주인공에 한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이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새 법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붕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나도 여직껏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지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집은 그렇게 짓고 산도 또 저렇게 있는데 사람이 인생길을 걷고 또 걷고, 그래도 그 집은 남아 있고 그 산은 남아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법가에도 있었지만 '새 인연을 이어서 해 달라' 고 그랬죠? 그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씨앗을 또 심어서 먹듯이, 그것이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조계종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고 계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넓히고 공부를 하는 뜻이니까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고 상대가 없다면 우린 발전을 못 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놔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차가 되고요. 그와 같이 인간은 부딪침에 의해서 다 커지고 발전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님네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 다 때려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체 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넓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잘못 나가느냐 잘 나가느냐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죠. 참답게 물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다든가 또는 너무 실직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옷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먹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그 원인이 어딨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는데요, 자기의 뿌리를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자기가 자기 불성이니까요. 그것은 한 해 두 해, 또 한 생 두 생만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나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수억겁 전으로부터 이끌어 온 장본인인 바로 근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세하게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느냐. 이런 게 아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업보가 '있다' 고 한다면 업보가 있게 되고 소멸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다 같이해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쌓은 습을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가 관하고 놓으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영가 천도를 하러 와도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경우 그 숨어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천도, 이것은 부모의 업장을 모르고 그대로 하면 빠진 게 많아서 그 업장의 요소들이 다 녹아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이 제대로 천도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마저 해 달라' 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당신네들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다.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죽거려 주는 게 보현신이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에 빨리 깨쳐서 다 소멸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소멸이 되면서도 또 공덕이 되는 것은 뭐냐? 거기다 자꾸 입력하면 소멸이 되니까 공덕이 되는 거죠.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다 소멸되니까, 자꾸자꾸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부처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세상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체 만물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다 퍼져서 알게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 주니까 받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좀 받으시지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지혜롭게 공부하시려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된다.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첨보해서 원심으로 만들어라.' 첨보하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이란 쉽게 말하자면 공식(共食)이죠. 한데 합쳐진 한 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가는 것을 한데 합쳐서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대처해 나가는 거를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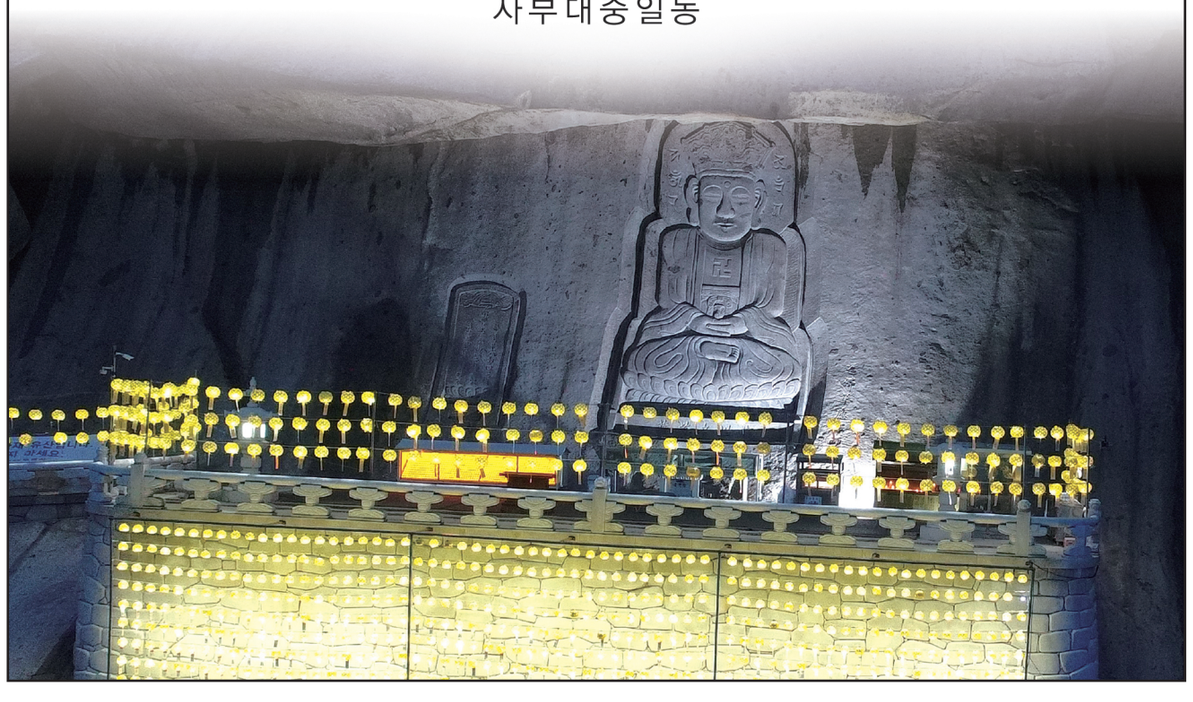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업보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잡아먹고 먹히고 이러는 거나 안다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 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인간은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그런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그런 상상력은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거를 대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전체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바로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또 아프다고 하면 약사 보살이 되고,

☞ A34면으로 계속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일동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Tel 02-356-2001 Fax 02-359-6297

